



자동차 엔진 기술 독립 이룬 승부사

이 현 순 사장

1950 서울 출생 / 1973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사 / 1979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석사 / 1981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박사 / 1981~1984 General Motors Institute 근무
1984 현대자동차 입사, 부장 / 1991 제1회 IR52 장영실상 과기처장관 표창 / 2000 현대·기아자동차 파워트레인 연구소장 / 2005~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 총괄본부장, 사장 / 2005 제23회 정진기연논문화상 대상 (과학기술부문) / 2005 제2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 금탑산업훈장 / 2006~ 현재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여 기술자립의 꿈을 이룬’ 이현순 현대·기아 자동차(주) 사장

어릴 적부터 나무, 쇠 등을 갖고 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즐겼다. 공학을 전공하신 아버지와 형제의 영향으로 물리, 수학, 화학을 좋아했고 대학도 자연스럽게 공학의 길을 택했다. 대학 시절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엔진, 터빈 등에 관심이 많았다.

군대에서도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4년간 기관실험실을 맡아 비행기의 프로펠러엔진, 제트엔진 등을 분해 조립하고 실험하면서 생도들에게 강의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미국 유학을 떠나 계속 이 분야를 공부했고 미국의 최대 자동차회사인 GM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현대자동차에서 엔진 개발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고민 끝에 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큰 꿈을 안고 1984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기술의 불모지에 가까웠다.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엔진을 전적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선진국 자동차메이커들은 현대자동차가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장담했을 정도였다. 이에 굴할 수는 없었다. 엔지니어로서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여러 연구원들과 함께 밤새워 연구 개발에 매달려 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갔고 마침내 1991년에 알파엔진 개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국내 처음으로 엔진을 개발하여 기술 자립의 꿈을 이룬 것이다.** 이는 현재 현대·기아의 모든 자동차에 독자 개발한 엔진을 장착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소나타에 장착된 세타 엔진은 2004년 다임러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가 로열티를 내고 사갈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술 리더가 되는데 대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이제 현대·기아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더욱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어 인간 삶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이공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이공계이다. 자동차의 경우, 효율 좋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계속 개발되어 고민거리이던 환경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질 것이다.

후배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기술자를 꿈꾼다면 목표를 높이 겨냥하라! (“Aim High!”) 자신의 능력의 한계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다. 능력의 한계를 높이 잡아야 한다.

또한 기술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술 선두주자가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원자력이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원전적 기술이 변혁하는 지금이 우리에게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약이 없다면 결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 항상 기술자는 남들이 하향등을 켜고 바로 앞을 볼 때 상향등을 켜고 더 멀리, 더 빨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회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미리 기술을 예측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



- 1 1991년 8월 베타엔진 개발
- 2 2005년 12월 금탑 산업훈장 수상
- 3 2002년 11월 장영실상 수상
- 4 2006년 6월 21일



나침반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實事求是]’ 과학기술은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 사실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다산은 열린 생각으로 변화를 꿈꾸었고 이를 실천하여 거중기를 발명하고 수원성을 건립하였다. 이처럼 옛날 조선시대에도 사물을 볼 때 날카롭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고 해법을 제시했다. 오늘날 과학기술자가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닐까.



동반자

20여 년간 자동차에 몸담으며 동고동락한 우리 연구원들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맡아 밤새워가며 개발해낸 엔진, 변속기는 지식과 같은 존재다. 개발에 성공하여 자동차의 심장이 되어 달릴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91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알파엔진이다.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제1회 장영실상을 수상했을 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로 고생했던 기억을 한 순간에 잊고 어떤 엔진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